

이순신 '조선수군 재건로' 따라 '若無湖南 是無國家' 큰뜻 기려

〈약무호남〉

〈시무국가〉

●전남도 대변인실 이돈삼 사무관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 발간

임진왜란의 변곡점이 된 명량대첩,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이 전투의 주역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구국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일본군과 건곤일척의 명량대첩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군을 재건한 44일의 여정을 따라가는 책이 나왔다. 이돈삼 전남도 사무관(대변인실·사진)이

편낸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가 그것이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발품을 팔아 남도의 자연과 사람을 만나고, 역사와 문화에 눈을 맞춰왔다. 그는 '남도문화 전령사', '남도여행 길라잡이'로 불린다. 책에서는 남도사랑이 짙게 밴 저자의 발걸음을 따라 400여 년 전 주역들이 힘겹게 걸어간 길고 긴 고통과 인내의 길을 함께 따라간다. 저자는 정유재란 당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듯 그 시절 그곳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동반자가 돼준다. 이 책에는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1597년 8월3일(음력)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뒤, 조선수군을 재건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이 소상히 담겨 있다. 그 중심에 이순신이 있고, 전라도 백성이 함께했다. '조선수군 재건로'는 경남 진주에서 하동을

거쳐 구례·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완도·해남·진도까지 총연장 500여km에 이른다. 이순신의 조선수군 재건은 황대중 등 군관 9명과 병사 6명으로 시작했다. 일본군이 뒤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군사적 근거, 군량을 모으고 군선을 복원하는 과정이었다. 이순신은 구례와 곡성에서 병사를 모으고, 순천에선 무기를 구했다. 보성에선 군량미를 다량 확보했다. 조정의 수군 철폐령에 맞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는 장계를 쓴 곳도 보성이다. 장흥에선 조선함대 12척을 회수해 수군의 면모를 갖췄다. 이순신은 이렇게 재건한 조선수군으로 9월16일 울돌목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조정의 지원은커녕 수군 철폐령까지 내려지는 악조건 속에서 조선수군 재건에 성공한 결과였다.

당시 이순신은 조선수군을 재건하면서 내륙의 길은 내륙으로, 바닷길을 통해 이동한 구간은 가까운 물의 길을 따라갔다. 그 길에서 우리는 정유재란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마주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거친 숨결도 느낀다. 중간중간 인용된 '난중일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고 느끼게 해준다. 남도 문화와 유적에 스민 선인의 숨결도 묻어준다. 책에 실린 사진 220여 장은 시공을 넘나들며 마주하는 현장을 로드무비처럼 보여준다. 뒤쪽에 실린 '조선수군 재건로 주요 현장 찾아가는 길'은 현장 답사를 위한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역할을 한다. 노기욱 전남도이순신연구소장은 추천사를 통해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명량대첩을 생생하게 풀어 쓴 이 책은 '이 시대의 난중일기'에 비견될 만하다"

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책에는 남도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가 사진과 잘 어우러져 있다"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남도 호국정신의 중심에 서고, 때로는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군사가 되고 장군을 응원하는 백성이 돼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저자 이돈삼은 "이순신은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았고, 그 바다를 누비며 백성을 지키고 나라도 살렸다"며 "지금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책이 바다와 호남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달리지마=오봉옥 저자
중견 시인 오봉옥의 국내 최초 웹툰 시집이 출간됐다. 신작 시집을 웹툰시 형식으로 발간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새로운 문예의 시도라는 점에서, '웹툰 시'라는 명칭을 다는 일에도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웹툰시집 '달리지 마'는 오봉옥의 시편과 '투닛'의 3D 기술이 만나 완성됐다. '투닛'은 3D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제공한다. 국내 최초 웹툰시집 '달리지 마'는 시적 상상력이 만화에 영향을 줘 재미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의 감성이 메달라가는 현대의 요구에 화응하는 참신한 예술형식으로 기대된다. /솔·1만3천원



▲다하지 못한 말=임경선 저자
동시대 사람들의 애절한 이야기를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담아내는 작가 임경선이 소설 '다하지 못한 말'로 돌아왔다.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인 '나'는 혼자만의 일상을 잘 보살피며 지내오던 성실하고 독립적인 여성 직장인이다. '나'는 공연 예술가로서 좌절을 마주한 남성 피아니스트인 '당신'을 우연히 만나 그에게 운명처럼 빠져들며 단정했던 일상은 조금씩 흐트러져간다. 바보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한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 가능하거나 한가?'라고 울부짖듯 독자들에게 물으며 사랑의 달콤, 황홀 그리고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간다. /토스트·1만8천원



▲깊은생각의비밀=김태훈,이윤형 저자
OTT, 숏폼 영상을 종이 쉼표로 읽는 시대,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스스로 생각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두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와 이윤형 교수는 수많은 대기업에서 '생각'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왔고 늘 화제가 됐다. 화제의 강연을 바탕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복합 사고능력을 키우고 단련하는 법을 흥미로운 심리 실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 매뉴얼이다. 최고의 판단력, 결정력, 문제 해결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랜 시간 곁에 두고 탐독해야 할 책이다. /저널·1만8천800원



▲문어의 여행=김현래 글·그림
어떤 여행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다. 문어의 여행도 그물에 걸려 육지라는 곳에 놓인 어느 날 시작된다. '여행의 시작은 첫발을 내딛는 것.' 첫발을 과감히 딛고 미끄러져 나간 문어는 연체동물의 특성을 발휘해 자유자재로 풍경에 어우러진다. 어느 때에는 치밀하게 어느 때에는 느긋하게, 새로운 세상과 밀고 당기기를 하며 그곳을 알아간다. 문어의 유연한 사고와 유쾌한 기질이 이 즉흥여행을 홀출 나아가게 한다. 자질한 사건과 만남으로 가득한 일상을 문어처럼, 여행처럼 유쾌하게 대하 고픈 마음이 뒤따르는 그림책이다. /사계절·1만6천원

다양한 앵글로 담아낸 서구 문화 공간 모습

리일천 사진집 '광주의 지금을 기록하다' 발간

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 공간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 '광주의 지금을 기록하다'가 발간됐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지난 2년 동안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시장, 공원 등 20곳을 누비며 촬영한 206점의 사진기록을 모두 160쪽 크기로 내놓았다. 이번엔 발간한 사진집은 리일천 사진작가와 서구문화원 빛고을문화교실 사진반 수강

생들이 2022-2023년 서구지역 곳곳의 문화 공간을 누비며 다양한 앵글로 담아낸 결과물이다. 사진집에는 선사시대 용두동 지석묘부터 삼봉 김세근 장군을 기리는 학산사, 의병과 군수품을 조달한 회재 박광욱의 벽진서원, 운천사 마애여래좌상과 병천사 존심당, 광주 영산재 법륜사 등 서구 주요 유형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무각사, 오월루,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공원 등을 방문해 카메라에 담았다. 이와 함께 사진집에 수록된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장소와 세부 공간에 대한 요약 설명을 수록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지금의 서구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한 리 작가는 올해도 빛고을문화교실 사진반 수강생들



과 함께 서구의 또 다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빛고을문화교실'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서구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